

KIA 한준수 “자신감으로 가을야구 위해 최선”



후반기 반등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의 포수 한준수가 가을야구를 위한 집중을 예고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전반기 58경기 출전해 ‘물리코스터’
후반기 2루타 3개 등 ‘달라진 타격’
“한 타석·한 경기 간절함 더해 집중”

KIA 타이거즈 포수 한준수가 ‘자신감’으로 팀과 개인 성적을 동시에 잡는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한준수는 ‘공격형 대형 포수’로 주목받으면서 2018 드래프트에서 KIA의 1차 지명선수가 됐다.

많은 시선을 받으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앞서 2019년과 2023년 각각 7경기, 48경기 출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김태균과 안방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잊지 못할 시즌을 보냈다.

115경기에 나와 0.307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KIA 정규시즌 1위에 힘을 보탤고,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해 우승반지를 차지했다.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경험까지 더한 만큼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시작도 나쁘지 않았다. 3월 22일 NC와의 개막전에서 대타로 출전한 그는 첫 경기에서부터 스리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시원한 홈런으로 시즌을 열었지만 한준수는 전반기 58경기에 출전해 0.231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타자 한준수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물리코스터를 탄 마운드 탓에 포수로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한준수는 “잘 맞은 것들이 잡히기도 하고, 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쫓겨난 것 같다. ‘쳐야지, 쳐야지’ 하면서 마음이 급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운 전반기를 보낸 한준수는 후반기 반등에 성공할 모습이다.

한준수 특유의 시원한 스윙과 함께 13일 경기 전까지 11경기에서 20타수 9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3개의 2루타도 기록하는 등 달라진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준수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좋아지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물쭈물하면서 플레이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그런 느낌이다”며 “뭔가 하나만 나오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느낌이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보다 많은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한 타석, 한 경기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졌다. ‘대타’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한준수는 순간순간 집중하고 있다.

한준수는 “대타로 나가게 되면 그 한 타석을 치려고 많이 노력한다. 모든 것에 집중한다. 쉽지 않은데 (고)종족이 형이 대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론 타격도 중요하지만 한준수는 포수로서 팀 승리가 더 간절하다.

한준수는 “수비 나가서 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든 지고 싶지 않다. 수비 나가서, 나가는 경기마다 이기고 싶는데 잘 안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1경기를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준비한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많은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KIA가 ‘디펜딩 챔피언’에서 5강을 격정하는 상황이 됐지만 아직 경기는 남아있다. 한준수는 결승선을 보면서 또 다른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한준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같다. 자신감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팀이 이기고 좋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고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한 집중을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윤영철 수술대 오른다

9월 4일 일본서 팔꿈치 인대 재건술

KIA 타이거즈의 좌완 윤영철이 수술대에 오른다.

KIA는 13일 “윤영철이 오는 9월 4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의리와 광도규도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다.

윤영철은 지난 7월 8일 한화를 상대로 시즌 13번

째 경기를 소화한 뒤 7월 11일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충암고 출신의 윤영철은 2023년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으며, 정교함으로 프로 첫 해부터 선발로 활약했다. 프로 첫해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책임지면서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7패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척추 피로 골절로 재활의 시간을 보내면서 18경기 81.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7승을 수확하면서,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역할을 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 떠난 유럽 리그…우리도 있소

뮌헨 김민재·PSG 이강인 등
개막전 앞두고 출격 준비 마쳐

2025-2026시즌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코리아 가이’는 누가 될까.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미국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다.

오는 16일 개막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프랑스 리그1 등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리그가 약 9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한다.

8월 23일 개막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한국 축구대표팀 주축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이재성(마인츠), 부활을 꿈꾸는 정우영(우니온 베를린)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김민재의 뮌헨은 17일 슈투트가르트와의 슈퍼컵 경기로 시즌을 시작한다. 이어 23일엔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치르고 2연패를 정조준한다.

2021년부터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은 처음으로 유럽대항전에 나선다.

2023-2024시즌 강등 위기를 겪었던 마인츠는 지난 시즌 눈에 띄게 달라진 경기력으로 리그를 6위로 마쳤고 유럽대항전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재성은 지난달 SV 제기르헨(오스트리아)과의 친선 경기 도중 골대와 충돌해 광대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 수술은 피했지만 2~3주 동안은 맞춤형 안면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니온 베를린으로 완전 이적한 정우영은 올 시즌 명예를 회복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명단에 들



김민재



이강인



박승수

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그다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즌 막판 발목을 다친 바람에 7경기에 결장하며 다소 아쉽게 마무리했다.

새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는 한국 선수 3명이 선을 보인다.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 낭트로 이적한 홍현석과 권혁규가 그들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이 뛰는 PSG는 14일 토트넘과 UEFA 슈퍼컵을 시작으로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18일로 예정된 리그 개막전에서는 낭트와 맞붙는다.

다만 이강인이 얼마나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이강인이 PSG에 머무르면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기게 됐다.

낭트로 이적하며 리그1 무대 데뷔를 앞둔 홍현석과 권혁규는 이강인의 PSG를 상대로 한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

벨기에 프로축구 헨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독일 마인츠로 이적해 이재성과 한술밥을 먹었던 홍현석이지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며 낭트로 임대됐다.

권혁규 역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버니언(스코틀랜드)에서 임대 생활을 한 뒤 낭트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EPL에 남은 한국 선수는 황희찬(울버햄프턴)과 박승수(뉴캐슬)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는 17일 강호 맨체스터 시티와 EPL 1라운드에서 만난다. 다만 2부 리그 팀 이적설이 팽배한 황희찬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프리 시즌 1군 테스트를 받은 ‘뉴캐슬 신입생’ 박승수는 EPL 데뷔를 노린다. 뉴캐슬은 16일 애스턴 빌라와 리그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유소년의 다음 골은 당신의 후원”

‘광주FC 유소년 재단’ 공식 출범

광주 지역 축구 인재 발굴과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공익법인인 ‘광주FC 유소년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FC 유소년 재단은 13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 후원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법적·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광주FC 유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 선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안정적으로 재단을 꾸려나가기 위해 ‘후원회’인 광주FC 아너스클럽을 운영하고, 축구 대회 등을 통한 지역 축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꾀한다. 광주FC 지원 및 공익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들이 축구 꿈나무 육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개인 후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자에게는 ‘기부 팔찌’가 증정된다. ‘기부 팔찌’는 5개의 별빛 디자인을 통해 광주시

의 5대 시정 철학과 유소년 선수들의 꿈을 형상화했다.

후원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 받는다. 후원 금액에 따라 아너스클럽 멤버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후원자는 구단 IP 사용권, 경기장 보드 광고권, 구단 유니폼 광고권, 디지털 마케팅권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은 계좌이체,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광주FC 유소년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일 광주FC 유소년재단 이사장은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내와 협동심, 도전 정신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내 축구 꿈나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광주 축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